

# “고품질 장미 생산...장미·화훼분야 최고 될 것”

## 新 농촌 꿈꾸는 청년농업인

김재원 곡성꽃내음농원대표

7년차 농업인...쿨링하우스서 장미 주 1만여송이 생산  
전량 서울서 소화...“대규모 화훼 생산단지 조성 목표”



김재원 곡성꽃내음농원 대표가 쿨링하우스에서 생산하고 있는 장미를 손질하며 재배·유통 방식을 설명하고 있다. /김현지기자

“고품질 장미를 생산, 장미·화훼분야 최고가 되고 싶습니다.”

곡성군 옥과면에서 꽃내음 농원을 운영 중인 김재원(33) 대표는 7년차 농업인으로, 1주일 평균 20여종의 장미를 1만2천송이 정도 생산하고 있다.

김 대표는 고품질의 장미 생산에 중점을 두고 생산 비용이 조금 더 들더라도 쿨링하우스의 시설과 비료, 영양제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쿨링하우스는 천장, 측장이 온도에 따라 자동으로 개폐되는 시스템과 내부에 안개 분무, 차광커튼, 냉방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시설하우스다.

보통 여름철 하우스 내부 온도는 최고 40~45℃까지 치솟아 장미 생산량이 큰 폭으로 감소하지만, 쿨링하우스는 해당 온도 대비 12~13℃가량 낮출 수

어 적정 생산량 유지가 가능하다.

김 대표는 쿨링하우스 4개동 3천600평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생산되는 장미들의 수량은 3배, 줄기 길이도 1.5배 길고 굵기가 굵어 경매에서 높은 값을 받고 있다.

장미들은 재배된 뒤 단으로 포장돼 전량 서울에 공급되고 있다. 50% 정도는 화훼 공판장에서 경매가 되고, 나머지 50%는 꽃 시장의 위탁 판매 업체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김 대표는 지난 2016년 부모님의 귀농이 계기가 돼 농업에 뛰어들었다. 당시 김 대표는 농업과는 전혀 다른 전공으로 취업 준비를 하고 있었으나, 거대한 하우스와 화려한 장미꽃을 보며 쉽게 할 수 없는 일이니 도전해서 배워보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 20대의 젊은



나이도 농업을 꾸준히 하면 기회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어서였다.

이후 김 대표는 농업에 대한 전문지식을 쌓기 위해 2017년 전남대학교 원예학 대학원에 입학하기도 했으며 장미는 병충해 등이 잘 발생해 키우기 어려운 작물인 만큼 쉬는 날 없이 늘 주의

깊게 살피고 높은 품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이런 김 대표에게도 위기는 찾아왔다. 2020년 1~2월 코로나19 유행이 시작됐을 때 졸업식이 모두 취소되고 행사가 줄어들자 장미 값이 거의 10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장미 재배를 하며 얻는 장점이 더 많다는 생각이다.

김 대표는 “누구나 쉽게 하기 어려운 일이라는 점과 젊은 나이에 농업에 종사할 수 있는 것도 좋다”며 “또 경험과 공부, 연구를 통해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평생 직장으로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고품질의 장미를 생산하며 사업장을 더 확장할 계획인 김 대표는 곡성에 대규모 장미 화훼 생산단지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김 대표는 “더 연구하고 공부하고 경험을 쌓아서 장미, 화훼분야의 대한민국 최고가 되고 싶다”며 “또 농사에 막연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이제 막 농사를 시작하는 청년농업인들에게 경험을 전수해주고 도움을 주는 멘토 역할도 할 수 있으면 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현지기자



## 완도수목원 ‘아열대 온실’ 형형색색 이국 정취 물씬~

전남도 완도수목원은 31일 “신록이 짙어가는 계절을 맞아 601종의 다양한 아열대식물을 전시, 이국적인 정취를 느낄 수 있는 아열대 온실 관람을 추천한다”고 밝혔다.

아열대 온실은 완도수목원에 3천702㎡ 규모의 유리온실로 조성, 워싱턴야자·인도보리수·유향나무·금초 등 601종의 다양한 아열대식물을 전시하고 있어 흡사 열대우림에 있는 착각을 일으킬 정도다.

아열대 온실에선 공중정화 식물인 틸란드시아가 배출한 청정한 공기를 마시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하얀색, 남보라색 자태의 브룬펠리아 재스민의 진한 꽃향기를 느낄 수 있다.

또 이름만큼이나 특색 있는 캥거루포우를 만날 수 있다.

/김재정기자



## 농협 광주본부-구세군, 영농철 일손돕기

광산구 송정농협 관내 농가서 토마토 순지르기 등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는 “최근 구세군전라지방본영과 함께 영농철 부족한 일손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구 본덕동에 위치한 송정농협 관내 농가에서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농촌봉사활동에는 고성신 농협중앙회 광주지역본부장, 홍봉식 구세군전라지방본영 지방장관, 차주철 송정농협 조합장 등 농협, 구세군 임직원 40여명이 참여했다.

참여자들은 토마토 재배 하우스에서 토마토 순지르기(줄기에서 뺀어 나오는 가지를 줄여 주거나 생장점이 있는 새순을 잘라 제거하는 것), 주변 정리 등 일손을 보태며 구슬땀을 흘렸다.

홍봉식 구세군전라지방본영 지방장관은 “고령화와 일손 부족으로 위기에 처한 농촌의 문제는 함께 해결해 나갈 속제로 농협과 합심해 지속적인 지원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김현지기자

## 과잉생산 양파 ‘기능성 제품’ 개발로 승부

도농기원, 수확기 이전 생산 양파도 고부가 식재료 이용

전남도농업기술원은 31일 “전남도의 대표적 지역 특화작목인 양파의 생육시기별 영양 기능성 성분을 찾아내고 이에 적합한 가공기술을 개발해 과잉생산에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양파는 주요 식자재일 뿐만 아니라 퀴세틴 등 플라보노이드계 화합물을 약 60~1천mg/kg 함유하고 있어 항균, 항

바이러스, 항염, 항산화 활성 등 면역력에 좋은 채소다. 그러나 작황에 따라 가격의 등락 폭이 커 재배 농민들의 소득 불안정은 물론, 산지에서 갈아엎는 등 과잉 생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또 수확 직후 대부분 원물로 유통·소비되고 있어 부가가치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전남농업기술원은 폐기 처리하

는 양파의 활용은 물론, 수급 조절에도움이 되는 방법을 찾아 발표했다.

기술은 잎을 포함한 전체 양파 식물체로부터 영양 기능성 물질을 다량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4월 하순께 생육 중인 양파는 대파보다 갈슘 3배, 비타민C 1.3배, 총염록소 21배로 영양 성분이 우수했다. 특히 5월 하순께 양파는 총 플라보노이드화합물과 총페놀화합물이 9월께 수확한 양파보다 1.9배 높은 것

## 전남농협 3개 시군지부, 강진 화훼농가 지원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는 “최근 농협 시군지부 3개소가 영농철을 맞아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 농가(강진군 움전면)를 방문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활동은 상생가치 실현을 위해 농협 강진군지부, 목포신안시군지부, 무안군지부 임직원이 함께 마련했다.

참여자들은 화훼 물대롱 만들기와 포장작업을 지원하며 농가의 고충을



이해하고 마음을 나누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김현지기자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장 김수관



창조클럽 아카데미 사무총장 김미숙

창조클럽 아카데미 총동창회가 광주매일신문 창사 3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 제5대 총동창회장 및 동창회원 일동 -